

## 2017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6. 12. 26.(월) 10:00~11:40

2. 장소 : 학생처장실(대학본부 1층)

3. 참석인원 : 7명

- 당연직위원(2명) : 학생과장 유승권(임시의장), 재무과장 박상락

- 일반직위원(5명) : 김창섭 위원, 이진희 위원, 안도균 위원, 김도영 위원, 이서준 위원

※ 배석 : 재무1팀장 정진혁(간사), 예산담당자 배가영

4. 불참인원(위임) : 2명(학생처장 이희숙, 부교수 김지영)

5. 심의 안건

- 2017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6. 회의내용

○ 위원장 : 안녕하세요. 학생과장 유승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학생처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어 학생과장인 제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적위원 총 9명중 7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17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입니다. 재무1팀장께서는 심의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혁 : (회의 자료 설명)

○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의 설명을 들으니 대학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 안도균 : 총학생회장 안도균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 중 '국고지원금 감축 추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있는지요?

○ 정진혁 : 네,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란 국가(기획재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예산으로 매년 60억정도 였는데, 최근 몇 년간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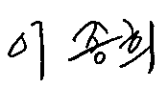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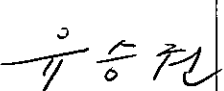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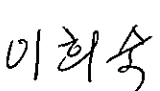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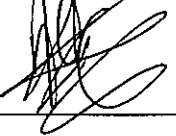
○ 안도균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여건 중 강사법 시행,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지출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 시 투입되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진혁 : 강사법은 2017. 1. 1.자로 시행되며 강사를 전임교원화 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써 강사 채용 비용, 4대 보험 부담금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써 대학에서 가성비를 따져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에서 KORUS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7. 1. 1.부터 가동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부에서 580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그 중 일부를 대학에서 부담하는데 우리대학에서는 약 15억을 3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2017년에도 추가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도균 : KORUS 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써야하는 것이지요?
- 정진혁 : 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인사, 재정, 연구분야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안도균 : 네, 그럼 자료 2쪽에 기타 세입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진혁 : 대학회계 세입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세입은 등록금, 수입대체경비, 기타 세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수입대체경비란 평생교육원, 국제교류본부 등에서 강의료를 받아 강좌운영사업을 하거나, 주차요금으로 주차관리사업을 운영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세입금은 강의실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회계 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표기하였으며 등록금 책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 이서준 :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서준입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각종 사업이 확대되어 세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별로 손익지표 분석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한다면 재정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업별로 이러한 손익지표 분석자료 등이 있는지요?
- 정진혁 :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투자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LINC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에 따라 대학에서 대응자금으로 일부를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몇 십억을 따기 위해 대응자금 몇 억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학교 차원에서는 몇 억 때문에 몇 십억의 사업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러한 대응투자비가 20억정도 투입되었고, 시설대응투자비를 포함하면 50억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 안도균 : 입학정원 감소에 따라 세입액이 감소하여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 세입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도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 왜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창섭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 운영비에는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줄어들거나, 건물이 줄어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입은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안도균 : 오송, 오창캠퍼스 이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송에는 약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창캠퍼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진혁 : 오송에는 2월에 약대가 이전할 계획이고, 오창에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으며 융합기술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연간 10억정도 됩니다.
- 안도균 : 네, 그럼 등록금 인상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 2016. 12. 12.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였고, 인상되는 등록금에 대하여는 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외국인은 국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떤 재원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 정진혁 : 외국인장학금은 국제교류본부에 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창섭 :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이 법규제 사항이 아닌 것은 알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요? 만약 대학원과 외국인에 대한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그 인상분이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원과 외국인에 대한 예산을 구분하여 투입이 가능한지요?
- 박상락 : 네,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원생에 대한 (야간)강의료로 대부분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은 최대한 국제교류본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2017년 예산 편성 시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 안도균 : 외국인 등록금 부분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대학원은 왜 1.5%를 인상하는지요?
- 정진혁 : 대학회계가 사실상 적자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없어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분에 대하여는 대학원에 지원할 것입니다. 2016년에도 대학원 등록금 1.7%를 인상하고 대학원 활성화 사업비로 3.5억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 김도영 : 그러면 외국인 등록금을 1~2% 더 올리고,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어떨지요?
- 정진혁 : 우리대학의 대학원 등록금은 최초 등록금 책정시 학부 기준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이 낮은 편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다른데 등록금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내용이나 투자 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 김도영 : 등록금 중 특이소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이소요는 실습재료비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실습기자재 구입도 가능한지요?
- 정진혁 : 가능한 하지만 대부분 직접 투자되는 교육비입니다.
- 안도균 : 특이소요 요구내역 중 간호학과는 반영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진혁 : 간호학과는 학부이기 때문에 특이소요를 추가 반영하면 평균등록금이 올라가게 되어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는 특이소요를 추가 반영이나 인상할 수 없고, 대학원은 평균등록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 학생위원 전원 : 자세한 설명으로 모두 이해되었으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김창섭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 김창섭 : 네, 학생위원들이 이해했다고 하니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2017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학부학생 등록금은 전년대비 동결, 대학원생 전년대비 1.5%인상,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전년대비15%인상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심의(안)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확정된 후 공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결 재					
팀장		학생과장		등록금심의 위원장	
학 생 대 표					
총학생회장 안도균		총대의원회의장 김도영	김도영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서준	